

▣ 줄거리

구한 말, 지주 최참판 댁과 마을 소작인들이 사는 평사리에서 최참판댁의 가장인 최치수가 살해된다. 이때 이 집의 먼 친척인 조준구는 그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어린 서희와 자신의 병신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조준구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긴 서희는 길상 등의 도움을 받아 간도로 도망친 후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으려는 집념으로 장사를 하여 큰 재산을 모으고 길상과 결혼한다. 서희는 길상 등의 도움으로 조준구로부터 빼앗긴 재산과 토지 문서를 되찾고 귀향하지만 간도에 남아 독립 운동을 하던 길상은 일제에 잡혀 구속된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희의 두 아들인 환국과 윤국은 자신들의 풍족함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중 윤국은 시위에 참가하여 정학 처분을 받는다. 그 뒤 출옥한 길상은 암자에서 관음 탕화를 그리고 다시 사상범으로 구속된다. 서희는 가족을 데리고 길상이 있는 서울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고 있을 때,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듣는다.

▣ 전체 작품구조

제 1 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97년부터 1908년까지 약 10년 간 경남 하동의 평사리를 무대로 하여 5대째 대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최 참판 댁과 그 소작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짐.</li> <li>• 구한말, 최 참판가의 당주 최치수가 살해되고, 전염병의 창궐과 대흥년, 조준구의 계략으로 최 참판 댁이 몰락함.</li> </ul>
제 2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0년부터 7~8년 간 간도에 정착한 서희 일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li> <li>• 경술국치 이후 간도 이민 현상과 독립 운동의 여러 면모, 서희와 길상의 혼인, 길상을 중심으로 한 독립 운동가들의 활약이 펼쳐짐.</li> </ul>
제 3 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서희 일행이 간도에서 귀국한 다음 해인 1919년부터 1929년 광주 학생 운동까지 약 10여 년의 세월을 다루고 있음.</li> <li>• 조준구에 대한 복수, 지리산의 의병 활동, 형평사 운동 등이 그려짐.</li> </ul>
제 4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9년부터 1930년대까지의 일제의 폭압과 혼란상이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전개됨.</li> </ul>
제 5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0년경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억압을 견뎌내야 했던 민족의 삶이 펼쳐짐.</li> </ul>

▣ 핵심 정리

★ **대하 소설의 특징**

- 오랜 세월이 걸쳐 무수한 사건이 연계된다.
- 많은 인물이 등장하여 복잡한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 당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시대 흐름을 보여준다.

★ **'토지'의 상징 의미** : 직접적으로는 최참판 댁이 소유하고 있다가 조준구에게 빼앗긴 평사리 땅을 가리킨다. 토지는 평사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되찾아야 할 소중한 것, 회복되어야 할 삶의 가치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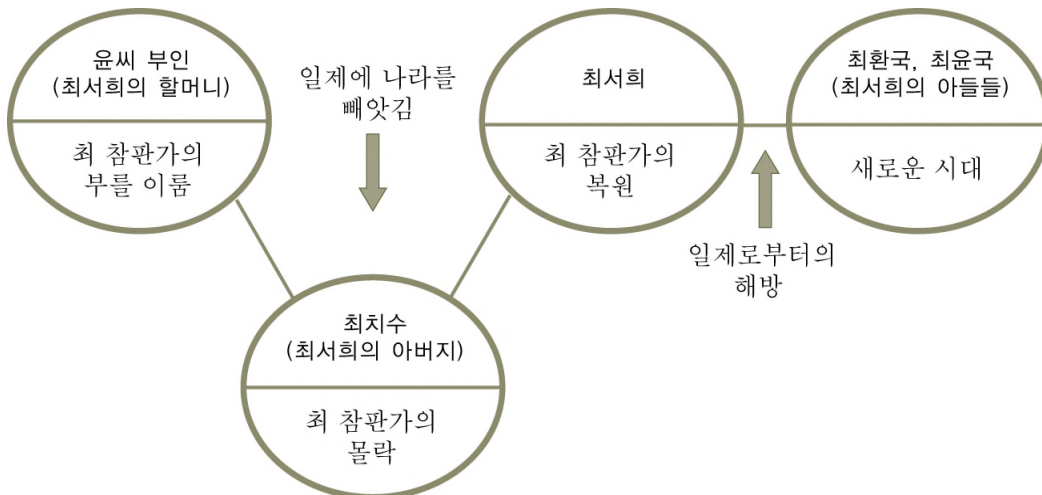
- 삶의 터전 : 농경 사회의 삶의 바탕, 생산과 경제 활동의 기반
- 삶의 현장 : 지주와 소작인의 봉건적 신분 질서와 이해 관계의 현장
- 국토의 상징 : 국권의 상실과 회복으로서의 토지

- 갈래 : 장편 대하 소설(전5부 16권), 가족사 소설
- 배경
  - 시간 : 구한말 ~ 8·15 해방
  - 공간 : 경남 하동의 평사리, 진주, 북간도의 용정, 만주, 일본 등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격동기 민족의 한과 강인한 생명력.
  - 삶의 터전인 토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당대 민족의 삶과 애환
  - 한국 근대사의 인물들이 겪는 식민지적 고통과 운명을 통한, 민족의 한과 의지.

■ 인물

- 최서희 → 최씨 가문을 이어가는, 굳은 의지를 지닌 인물. 최치수와 별당아씨의 외동딸. 최씨 집안의 마지막 핏줄. 조준구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용정으로 가서 부(富)를 이룩함. 공노인과 임역관의 중개로 빼앗긴 토지의 대부분을 회수, 길상과 헤어져 귀국을 감행, 진주에 자리잡음. 몰락한 조준구로부터 집문서를 넘겨 받아 가문의 재건과 복수를 마감한다. 양현이를 윤국과 짝을 맺어 며느리를 맞이하고자 하는 집착이 양현의 거부로 좌절되고 길상의 재수감, 윤국의 학병지원으로 또 다른 한의 그림자가 생긴다. 이런 고통은 그 동안 방어적이고 폐쇄적이던 서희의 가슴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기상이 센 성격의 여인상에서 정감 있는 어머니 상으로 변한다.
- 김길상 → 신분이 다른 서희와 결혼한 독립 운동가. 고아 출신으로 연곡사 우관 스님의 보호로 자라다가 최씨 집안으로 심부름꾼으로 들어가게 된다. 침모의 딸 봉순의 은근한 사모를 받지만 서희에 대한 동정과 연모의 정을 가진다. 서희의 몰락 과정에서 그녀를 끝까지 보호한다. 용정으로 함께 이주하여 서희가 부를 축적하는 데 크게 기여, 드디어 둘은 결혼한다. 서희의 귀국에 동행하지 않고 간도에 잔류, 독립 운동에 투신한다. 2년의 감옥 신세를 지고 진주에 은둔. 동학당 조직을 재건하려 하나 좌절, 원력(願力)을 모아 관음탱화를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
- 구천 → 최참판 댁의 머슴. 출생의 비밀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인물
- 최치수 → 최 참판가의 외가 친척으로, 교활하고 탐욕적인 인물. 최 참판가의 재산을 빼앗지만 광산 사업 실패로 인해 빛을 지다가 결국 최서희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
- 조준구 → 최치수의 이중형으로 최참판 댁의 재물을 탐내는 욕심 많은 인물.
- 상현 → 이동진의 아들로써 서희를 사랑하나 실패하여 방황하는 지식인

★ 작품 구조



## □ 이해와 감상

### 25년 만에 완성된 민족의 대서사시

「토지」는 1969년 9월 <현대 문학>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1994년에 완성된 대하 소설이다. 동학 농민 전쟁으로 혼란한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일제로부터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한반도와 만주, 일본 등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 역사의 격동기를 치열하게 살아간 우리 민족의 역사

이 작품은 최 참판 일가의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고 있고, 그와 더불어 회오리치는 역사의 물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서민들의 삶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바로 우리 민족 전체의 역사에 해당한다.

### 생명 사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작가 정신

생명에 대한 연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인간의 심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우리 민족의 삶의 뿌리를 근본부터 뒤흔든 일제에 대한 가차없는 시선, 수많은 인물들에게 모두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생명력을 부여한 작가의 창조력 등은 이 작품의 감동을 보다 넓고 깊게 증폭시키고 있다.

### 민족적 문화 전통의 보고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이야기와 사설, 창(唱), 철학적 진술, 역사 기술, 사회 진단 및 단평, 현실 비판, 소문 전달 등의 무수한 장면을 엮은 거대한 민족 언어의 탑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평사리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투박하면서도 순수한 대화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살아온 삶의 역정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으며, 그 삶 속에 간직된 고유의 풍속과 생활 습관은 물론, 그 안에서 분출되는 건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